

지바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2004년 3월 30일 지정
전승자: 시치넨마쓰리 보존회

시모우사 미야마의 시치넨마쓰리 축제

이 축제는 후나바시시, 지바시, 나라시노시, 야치요시의 9개 신사가 모이는, 시모우사 지방을 대표하는 합동 축제입니다. 축제는 9월에 열리는 소제(작은 축제)와 11월에 열리는 대제(큰 축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년마다의 소띠 해와 양띠 해에 열리며, 세는 해로 7년이 되기 때문에 시치넨마쓰리(7년 축제)라 불리고 있습니다.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무로마치 시대(1336-1573)의 지바 일족 마쿠와리 야스타네와 관련된 순산 기원과 순산 감사의 고사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소제(작은 축제)는 옛날에 유다테(물끓이기) 의식을 통해 대제의 날을 점쳤다고 해서 '유다테사이'라고도 불렸으며, 니노미야 신사에서만 열립니다. 신위가마와 축제용 수레 등이 하루 종일 미야마 마을을 누비며 행진합니다.

대제(큰 축제) 첫날에는 '목욕재계 의식'에 따라 사람들이 옛 사기누마 해안으로 가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음날을 준비합니다. 2일째는 '순산 감사 대제'가 열립니다. 가미소로이바(후나바시시 미야마 7)에 모든 신사의 신위가마가 전부 나와 '나나마가리'라 불리는 길을 따라 니노미야 신사로 가서 신체가 있는 곳까지 들어가 참배합니다. 3일째의 '이소데사이'는 지바시의 옛 마쿠하리 해안에서 열리는 순산 기원 제사로, 4곳의 신사가 모여 합동으로 거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니노미야 신사와 고야스 신사의 신위가마가 '작별 의식'을 거행하고, 돌아가는 길에 니노미야 신사의 신위가마만 나라시노시 사기누마의 '간노다이(히노쿠치다이)'에 들러 제사를 올립니다. 이 제사가 끝나면 비로소 대제 전체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노미야 신사의 신위가마는 나라시노시 후지사키, 후나바시시 다키노이를 누비며 행진한 후 니노미야 신사로 돌아옵니다.

후나바시시 교육위원회